「임제록」과 「부모은중경」

새끼거미가 어미의 몸을 파먹음으로써 목숨을 시작한다는둥, 새끼를 위해 어미 자신이 살신공양하는 몇몇 미물에 대한 이야기는 일대 화엄변상도이다. 어떤 종류의 뱀은 이름 자체가 '살모(殺母)'이다. 살(肉)을 받아 태어나는 일체 짐승은 물론, 인간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어머니의 젖은 당신의 처녀시절에는 핏줄이었다고 한다. 핏줄이 젖줄되는 해산의 고통은 2세 탄생을 위한 어머니의 상징적 죽음일 터이다.

탄생이, 터무니없는 피의 희생 위에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은 거듭 터무니없으면서도 신비롭다. 혹 신비롭다면 신의 은총이요, 혹 터무니없다면 신의 저주를 받으며 생물은 목숨을 시작하는 셈이 된다. 어느쪽이든 부여받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는 최선의 의무이자 최후의 저항이기도 할 것이다.

일전에, 부모를 살해한 한 청년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의 육체는 시체가 된다. 여러 「불경(佛經)」에 의하면, 그의 영혼은 136가지 지옥 중에서도 으뜸인 '무간(無間) 지옥'으로 옮겨진다. 빈틈없이, 쉴새없이 고통스럽다는 그 지옥엔 부모를 죽인 자 등이 간다.

비단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신문의 사회면은 한 폭의 지옥도를 방불케 한다. 부모살해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패륜의 일들로 도배되기 일쑤다. 그 주인공들의 사후세계를 볼 수 있는 자료가 「한국의 지옥도」(상미사) 혹은 「지옥도」(대원사)가 아닐까. 길게 늘어뜨린 혓바닥을 쟁기질하는 '발설지옥'의 고통조차 "바닷물에 떨어지는 물 한방울과 같이 가볍"게 여기는 지옥도 있다.

「임제록(臨濟錄)」과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두 '작품'의 시각을 빌리면, 정신의 부모를 살모사처럼 잡아먹는 일은 성스럽되 육체의 부모를 난자하는 폭력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 같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선승 임제. 그는 "가는 곳마다 주인, 서는 곳마다 진리의 땅"이 되려면 정신의 살부살조가 필요함을 일갈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은 바로 죽여버려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친척권속을 만나면 친척권속을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하여…자유자재하게 된다."

선문답의 왕자 임제(?~867)는 '가장 창조적인 사상의 모험'의 결과는 '살부살조(殺佛殺祖)'임을 설파했다. 그의 대담무쌍한 우상파괴론은 일체 권위주의와 억압에 짓눌린 영혼들에게 꽃비를 내려준다. 특히 '애비찾기'에서 '가짜애비 성상 파괴'로 이어진 근현대를 살아온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상징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들은 정신적 '애비'를 죽이고 스스로 애비가 된 살해자들이라고 임제는 말하는 듯하다.

한편 「부모은중경」은, 김소월의 말마따나 "나도 부모되어 알아보리라" 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극진한 은혜를 열거하고 있다. 어버이날에 부르는 '부모님 은혜'의 가사와 비슷하다. 잉태하고 지켜준 은혜, 해산할 때 고통받는 은혜, 쓴것은 삼키고 단것은 뱉어 먹여준 은혜,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인 은혜 등등이다.

부처가 "너는 이제 똑똑히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며 주목을 요구한 부모 은혜 10가지 중 아홉번째는 숫체 청천벽력이다.

"위조악업은(爲造惡業恩) : 자식을 위해 악업을 거듭하시는 은혜"

당신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자식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

최근 폭발적인 시청률을 기록중인 '송지나 극본, 김종학 연출「모래시계」'가 지난 80년대의 시대정신을 '살부'로 파악했대서 일부 문인들이 화젯거리로 올리는 모양이다. "한낱 드라마가?"라고 얕잡아보는 사람도 있다. 문단에서는 80년대말에 이미 살부시대의 종언을 고했고, 새로운 애비의 출현을 고대했던 것이다. 한 문학평론가는 「편모슬하에서의 글쓰기」를 통해 젊은 시인들이 스스로 애비될 생각은 않고 에미의 치맛자락 아래에서 칭얼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념의 살부 시대가 지나 존속살인이 횡행하는 요즈음, 출판물에서도 부권회복운동이 만만치 않다. 일련의 「수신서」 시리즈가 그렇고, 「아버지가 들려주는…」 시리즈는 더욱 그렇다.

출판저널

통권 제163호 / 1995년 2월 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댁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왜 이토록 엄청난 의학적 발견이 묻혀져야 했는가?

"도롱뇽이 할 수 있다면 인간도 할 수 있다!"
도롱뇽은 잘려나간 팔다리는 물론 심장까지도 완벽히 재생해 내는데,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것일까? 30년에 걸친 집념의 연구 끝에 로버트 베커 박사는 인체도 재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힌다. 이 책《생명과 전기》는 그 연구의 충실한 기록인 동시에, 한 옹고집 의학자가 타성에 젖은 기성의학계와 정부를 상대로 외롭게 벌인 드라마틱한 투쟁의 기록이다.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그의 발견을 기성의학계는 왜 이단시했으며, 정부와 軍 당국은 왜 암암리에 연구의 진행을 방해했을까?

◈ 재생과 치유, 생명현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전기!
◈ 침술, 초감각, 암의 메커니즘이 새롭게 규명된다!
◈ 생명의 기원은 반도체성 유기물, 뼈는 압전 소자로 되어 있다!
◈ 지금 핵무기보다 더한 위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로버트 베커 외/공동철 옮김/값 7,5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팩시 739-8791